



검은 바다

문영숙 글 | 김세현 그림
문학동네 | 초등 5학년 이상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도서
한국도서관협회 우수문학도서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활동1 너를 지켜 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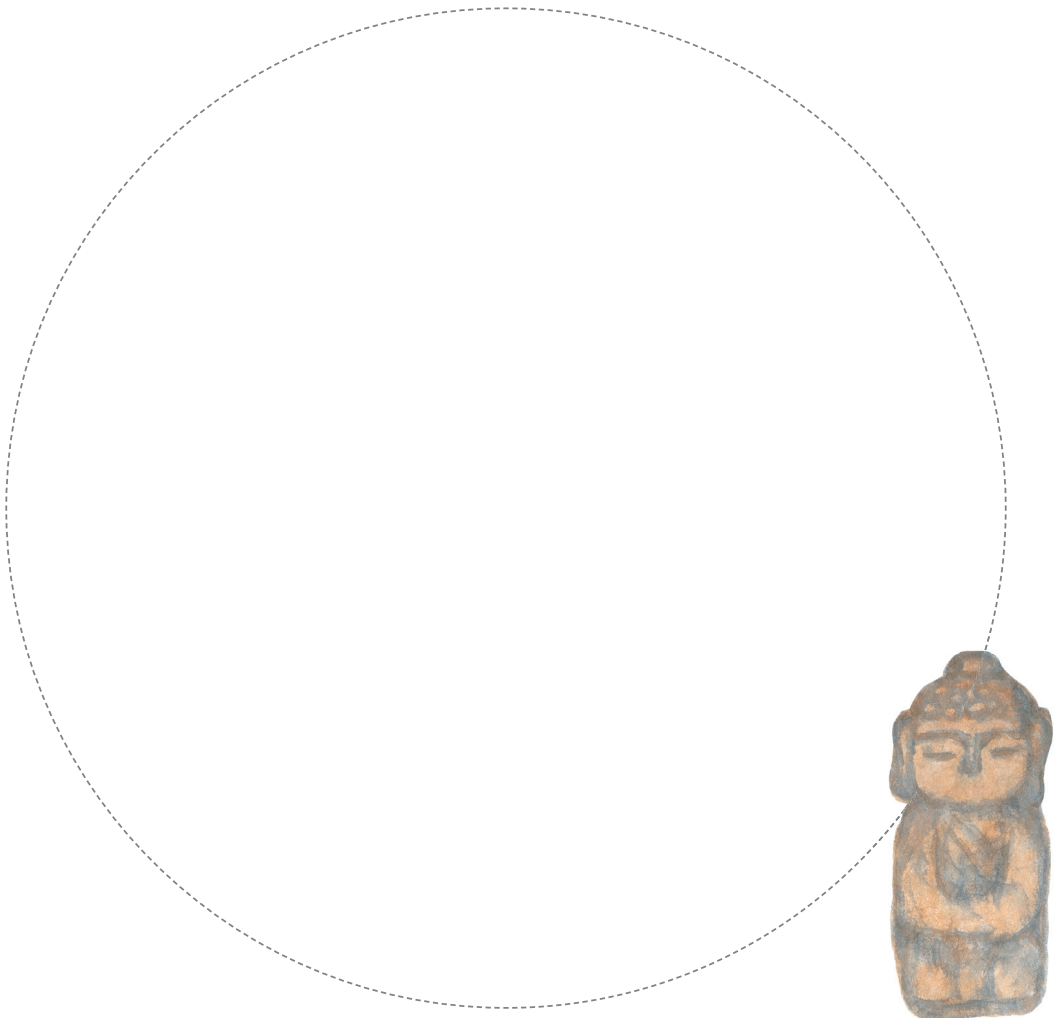
강재는 천석이가 만들어 준 ‘나무 부처’ 덕분에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친구를 지켜 줄 물건을 떠올려 그려 봐요.

친구를 닮은 동물을 그려 넣거나,

친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행운의 색을 칠해도 좋아요.



활동2

『검은 바다』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용된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강제징용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떤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 기사문을 써 보세요.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수요집회’에 대해 알아보고 기사문을 써도 좋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를 집어넣어 써 보시다.



꼭 주고 싶은 귀선증

일본이 전쟁을 시작한 후,
일본에 끌려간 강제징용자들은
조선으로 돌아가려면 ‘귀선증’이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많은 조선인들이 귀선증을 받지 못했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꼭 주고 싶은,
귀한 귀선증을 완성해 주세요.
강제징용자들이 꿈에 그렸을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을 그려 넣거나,
강재와 천석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것도 좋아요.

귀 선 증